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24일 국회의원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정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7번째 만남도 '빈손'... '성탄 선물'은 없었다

여야 27일 선거구 획정 재논의...사상 초유 선거구 부재 사태 오나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연말까지 20대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열었으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문제를 풀기 위해 이날 들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번째 회동을 가졌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로 보

충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소수정당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재적 의원 300석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한 게 기본 합의 정신"이라며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이를 농어촌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을 포함해 모두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 의장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7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으나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

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애초 정 의장의 이 같은 방침은 여야에 합의를 압박하는 한편,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화돼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 뿐 아니라 쟁점법안도 함께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정 의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 의장 측은 이날 "여당의 입장에 따라 설명 선거법만 직권상정해도 본회의 처리가 안 되게 됐다"며 "직권상정 시점을 놓

고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연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안 단독으로 직권상정하기보다는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합의처리 등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종료시점까지 최선을 다한 뒤 최종 결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도 결국 내년 1월8일개 쟁점법안 및 노동개혁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당분간 선거구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경우도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의원 탈당 대열에...새정치 텃밭 붕괴 가속화

27일 광주 구의원 10여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탈당 선언을 한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도 탈당 대열에 합류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기초의회 의원들마저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새정치연합의 호남 텃밭 붕괴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동구와 북구, 광산구의회 소속 구의원 10여명은 오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창조적 야권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한 합동 탈당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인 이들

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호남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선 새정치연합의 창조적 파괴는 불가피하다"라며 "역사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신념과 확산 아래 안전수의원과 탈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지방의원으로서 지역민이 요구하는 야권 재편과 정권교체의 길을 외면하는 것은 광주시민노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지방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4·13 총선 현장

신애원 방문 "꿈의 탑 쌓기 노력해야"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

김명진 광주시 남구 예비후보는 24일 아동복지시설인 신애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달했다.

그는 이날 광주시 남구 송하동 신애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카드 그리기·캐슬 송 부르기 등 원생 100명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특히 중고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의 꿈'이라는 주제의 대화의 시간



에서 "다보탑 정신, 나를 다듬고 남을 보듬으며 꿈의 탑을 쌓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원봉사자인 대학생과 원생들간 일대일 상담을 위한 '꿈을 나누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 원생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야권 단일 신당 위해 힘 모아야"

유선호 목포 예비후보

유선호 목포 예비후보는 24일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등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에게 야권 단일 신당을 위한 통합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야권 신당은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시대정신"이라며 "분열된 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필패하는 공멸의 길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귀결된다. 단일 신당



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함을 극복하고 박근혜 정권의 무도함을 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능한 신진 인사 영입 등에 매진해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올해 안에 논의의 물꼬가 트여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새누리 공천률 갈등... '단수추천제' 쟁점

새누리당 내에서 '단수추천제'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당의 수장인 김무성 대표와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이 24일 단수추천제 실시 여부에 대해 근본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단수추천에 대해 당규에는 '복수의 추

천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단수후보자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월등한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당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

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라공천 수단으로 변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전라공천이라는 용어 대신, 당규에 표현돼 있는 우선추천제와 더불어 '후보 단수추천 문제'가 사실상 전라공천의 변형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황 사무총장은 전날 특위 첫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한 사람이 출중한 경쟁력이 있다면 단수 추천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곳은 경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과 만나 "단수 추천이라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 경쟁을 안 시켰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단수추천제가 향후 전라공천으로 활용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황 사무총장의 브리핑과 상충하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심상정 대표 "야권 통합 NO...연대 YES"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통합론에 대해 "통합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여권대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통합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저는 정의당 당원들 대다수는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꿈꾸는 대안 정부의 모습이 통합을 이룰 만큼 충분히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심 대표는 "야권승리 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승리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동 해 나가겠다"며 선거승리를 위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